



최근 광주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에서 조명우가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르코 자네티, 조명우, 에디 맥스, 그랜호프만.

사진제공=광주당구연맹

‘한국 당구 간판’ 조명우, 광주 월드컵 정상 올랐다

마르코 자네티 50-30 제압

80포인트 획득 ‘정상 탈환’

.....

최완영, 안방서 8강 호성적

전남 김행직, 16강에 그쳐

사상 첫 광주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3쿠션당구월드컵'에서 조명우(서울시청)가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조명우는 세계랭킹 1위 탈환에 성공했다.

조명우는 지난 9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마르코 자네티(이탈리아)를 50-30(에버리지 2.00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그는 올해 두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다. 또 이번 대회까지 3쿠션 당구월드컵에서 세 차례 우승을 차지, 한국 최다 우승자인 김행직(전남-진도군청)과 3회 우승 타이틀 기록했다.

총상금 2억여원 규모인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80점의 랭킹 포인트가 주어진다. 준우승자에게는 54점, 공동 3위 36점, 공동 5위 26점 등이 돌아간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80포인트를 쟁긴 조명우는 기존 세계랭킹 1위 에디 맥스(벨기에·417포인트)를 제치고 439포인트로 최정상 자리로 탈환했다. 앞서 조명우는 2025년 한 해에만 아시아선수권, 세계선수권, 월드컵을 모두 제패하는 ‘그

랜드슬램’의 성과를 달성했다. 더욱이 올해 두 번째 월드컵 우승으로 한국 3쿠션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이번 광주 월드컵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2013년 구리에서 열린 첫 월드컵에서는 강동궁이, 2017년 청주에서 열린 첫 월드컵에서는 김행직이, 2025년 광주에서 열린 첫 월드컵에서는 조명우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에서 월드컵이 처음 개최된 도시마다 한국 선수가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 첫 월드컵 개최지에서는 한국 선수가 우승한다’라는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조명우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32강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김행직에게 17-40으로 패했다.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마누엘 코스타(포르투갈)를 40-33, 투르가이 오라클(튀르키예)을 40-25로 각각 꺾고 2승 1패를 기록, 16강에

진출했다.

16강전에서는 다오반리(베트남)를 50-25로 꺾고 8강에 진출했고, 8강에서는 최완영(광주당구연맹)을 50-23으로 누르며 준결승에 올라왔다.

이어 4강전에서는 2023년 ‘서울 당구월드컵’ 결승전과 지난달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패배를 안겼던 에디 맥스를 50-39(에버리지 2.380)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후 결승전에서는 경기 내내 안정된 수비와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며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최완영(광주당구연맹·세계랭킹 57위)은 안방 이점을 살려 8강 호성적을 작성했다. 그는 32강 조별리그 첫 경기서 마틴호(독일)에게 26-40으로 패했다. 그러나 트란퀴엣치엣(베트남)과 휴고 파티노(미국)를 잇따라 꺾고 2승 1패로 16강에 이름을 올렸다.

16강에서도 사미흐 시덤(이집트)를 50-48로 누른 최완영은 8강에서 이번 대회 우승자인 조명우에게 23-50으로 패배, 4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전남의 김행직(세계랭킹 12위)은 32강 조별리그에서 3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이후 16강에서는 이번 대회 준우승자 마르코 자네티를 만나 26-50으로 패하며 8강에 오르지 못했다.

파죽 열 바르키 세계캐롬당구연맹(UMB) 회장은 “역대 월드컵 중 최고 수준의 대회 운영을 만들어준 대한당구연맹과 광주당구연맹에 감사하다”며 “광주 월드컵을 기점으로 캐롬 종목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월드컵은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가 '2025년 전남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워크숍'을 개최. 임·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전남 체육 성장의 밑거름 되겠다”

전남도체육회, 2025 집행부 임원 워크숍 성료

전남도체육회가 '2025년 전남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워크숍'을 개최. 임·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집행부 임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임원 역량 강화와 조직간 유대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두륜산 케이블카 체험과 대흥사 경내를 둘러보며 바쁜 체육행정에서 벗어나 가을단풍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

이어진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박성배 안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체육의 흐름 변화 및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국내·외 체육환경의 최신 흐름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체육단체가 대응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세세하게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육을 통해 임원들은 정책 이해도와 행정 대응 능력을 한층 높였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의견도 활발히 공유했다.

뒤이어 ‘나도 연예인(가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 장기자랑 코너에서는 임원과 직원 모두 그동안 숨겨진 끼를 맘껏 뽐낸 기회와 동시에 임원과 직원 간 장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높이는 어울림의 시간이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임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체육회 내부의 협업 문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체육의 성장은 함께 고민하고 움직이는 임원들과 직원들의 힘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눈 경험과 교감이 향후 전남도체육회 운영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2025시즌 KLPGA 투어 결산

4명 10억원 돌파 ‘최다 타이’...유현조, 올 시즌 투어 호령

유현조, 지난 시즌 신인왕 이어 올해 대상...최초 타이틀 방어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 챔피언 리슈잉, 중국 국적 새 역사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지난 9일 최종 대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총 31개 대회에서 총상금 346억원으로 펼쳐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단연 유현조(20·삼천리)다.

루키 시즌인 지난해 신인상을 수상한 유현조는 올 시즌 KLPGA 투어를 호령했다. 역대 최초로 메이저 대회에서 루키 우승자가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으며, K-랭킹에서도 생애 첫 1위에 등극했다. 위메이드 대상도 1개 대회를 남기고 조기 확정했다. 2021시즌 장하나 이후 4년 만에 60타대 최저타수상까지 확정하며 올 시즌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올 시즌 KLPGA 투어 주요 타이틀 부문에서는 시즌 내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상금왕은 13억4152만3334원을 기록한 홍정민(23·CJ)이 차지했다. 이로써 그는 생애 첫 상금왕의 영예를 안았다. 올 시즌 꾸준히 활약한 노승희(24·요진건설산업)는 13억2329만9754원으로 2위에, 유현조가 12억7780만2481원으로 3위, 방신실(21·KB금융그룹)이 11억4693만1420원을 모아 4위를 기록했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의 영예는 서교림

(19·삼천리)이 차지했다. 그는 신인상포인트 1468포인트를 획득하며 김시현(19·NH투자증권·1393포인트)과 송은아(23·대보건설·1354포인트)를 제치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다승왕의 왕관은 시즌 3승을 거둔 이예원(22·메디힐), 방신실과 홍정민까지 3명의 선수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또 올 시즌에는 9명의 선수가 생애 첫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골프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고지원(21·삼천리)은 올 시즌 고지우(23·삼천리)와 함께 KLPGA투어 최초 ‘단일 시즌 자매 우승’ 기록을 세우며 감격을 더했다.

올해 신규 대회로 열린 ‘광남일보·해피니스 오픈’에서는 리슈잉(22·CJ)이 초대회 챔피언 자리에 올라 KLPGA 정규투어에서 첫 번째 중국 국적의 우승자가 탄생했다. 이는 2015시즌 이후 10년 만에 외국 국적 선수의 우승이었다.

김민술(19·두산건설위브) 또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했다. 올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을 확보하지 못해 드림투어에서 출발한 김민술은 시즌 4승을 차지하며 드림투어를 평정했다. 이어 추천선수로 출전한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2025’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역대 KLPGA투어 13번째 추천·초청선수 우승자가 됐다. 이후 정규투어로



무대를 옮긴 김민술은 우승을 추가해 시즌 2승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역대 최대 상금 규모로 진행된 올 시즌에는 4명의 선수가 상금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각종 기록이 눈길을 끌었다.

홍정민, 노승희, 유현조, 방신실이 KLPGA투어 단일 시즌 누적 상금 10억원을 넘기며 2024시즌에 이어 최다 인원이 탄생했다.

가장 많은 버디를 기록한 선수는 위메이드 대상의 주인공인 유현조다. 유현조는 370개의 버디를 엮어냈다.

장타퀀은 올 시즌 메이저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이등인이 차지했다. 이등인은 평균 드라이브 거리 261.0591야드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지난해 1위였던 방신실이 258.7493야드로 뒤를 이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